



'백조의 호수' 진수 만난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이 오는 13일~15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122회 정기공연 '백조의 호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시립발레단 13~15일 광주문예회관 ... 세계 최고 안무가 러시아 유리 그리고로비치 사단 총출동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이 최고의 안무가로 칭송받고 있는 러시아의 유리 그리고로비치와 함께 '백조의 호수'를 선보인다. 13일 오후 7시30분, 14~15일 오후 3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백조의 호수'는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서정적인 음악과 운명을 거스르는 사랑이야기가 결합된 작품이다. 클래식발레의 대명사로 통하며 '잠자는 숲 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로 통한다.

이번 작품에는 60명 이상의 무용수가 출연하며 이 외에도 오케스트라, 무대 연출 제작진 등 약 15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참여해 눈길을 끈다.

또 러시아 유수 프로덕션의 제작진이 참여해 화제다. 유리 그리고로비치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제작진들의 연출과 효과, 화려한 의상은 작품의 매력

을 배가시킨다. 마린스키 발레단의 조명디자이너 페레발로프 알렉세이, 의상디자이너 엘레나 돌갈레바, 크라스노다르 시립극장의 무대디자이너 미하일 사포주니코프, 트레이너 라치콥스키 올레그와 바수첸코 올가 등이 함께 내한한다.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선보일 이번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악마 로트바르트에 대한 해석이다. 다른 버전에서는 악한 마법사로 표현되지만 이번 버전에서는 악마가 지그프리트 왕자의 또 다른 내면, 즉 '악의 근성'으로 표현된다.

이번 무대에는 세계를 누비는 한국 무용수들이 시립발레단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워싱턴 발레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은원, 국립발레단을 대표하는 수석무용수 이동훈, 시립발레단의 신승현, 보그단 플로피뉴, 강은혜, 이기행 등이 캐스팅 돼 서로 다른 색깔의 무대를 보여준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차이콥스키의 음악은 전 장

원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박태영이 지휘를 맡았으며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대표 김유정)가 연주한다.

총 2막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에서는 1·2막에 추가된 '왕자와 악마의 2인무'와 '궁대의 36회전', 궁정의 왈츠군무, 2막 각 나라 공주의 춤에 새로 삽입된 '러시안 춤'과 기존 버전보다 솔리스트들의 기량이 더욱 보장된 민속춤의 묘미도 느낄 수 있다.

광주시립발레단 관계자는 "안무가가 지닌 예술 철학의 일면을 무대로 표현해냈다는 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사자막(stage screen)과 다양한 무대장치, 조명등도 나타내는 변화무쌍한 무대 퍼포먼스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관람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학생전석 50%할인) 문의 062-522-8716, 062-613-824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강남구의 '시간 속 풍경을 탐하다'

드영미술관 초대전, 초기 작품 등 70여 점 선배

오랜 풍파를 이겨온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보여지는 고목 위 화려한 매화, 유리알처럼 맑은 알맹이를 보듬은 석류.

서양화가 강남구 작가가 최근 몇년 사이 즐겨 그리는 소재는 매화와 석류다. 여기에 칸나, 스타치스, 장미 등 화려한 색감의 꽃도 화폭에 자주 등장한다.

강남구 작가 작품전 '시간 속 풍경을 탐하다'전이 오는 29일까지 무등산 자락 드영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기획초대전은 강 작가의 근작 뿐 아니라 그의 작업 세계의 변화 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옛 작품들도 함께 만날 수 있어 흥미롭다. 지하층과 1·2층 3개관 모두를 사용해 7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다.

1층에서 만나는 '공간-생명력' 연작 시리즈는 변화무쌍한 매화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100호 대작부터 소품까지 화폭에 담긴 흐드러진 매화와 그 꽃들에게 각기 다른 느낌을 부여하는 감각적인 바탕색이 어우러진 작품은 다양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보라색, 녹색 등으로 딱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작가가 배합해낸 개성적인 배경색과 눈부시게 하얀 매화, 각기 다른 농도의 붉은 빛 홍매화, 규칙 없이 뻗어나간 가지 등이 어우러지면서 같은

듯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특히 화려한 바탕색을 제거하고 오롯이 매화와 자유자재로 뽀뽀한 가지만을 그린 작품들에서는 정제되고 차분한 기운이 느껴진다.

창평장에서 만난 할머니의 고무 대야에 담겨 있던, 햇빛을 받아 반짝이던 석류의 모습에 마음을 뺏겨 줄곧 그려온 석류도 전시됐다. 반쪽으로 쪼개진 석류, 툇터져나온 영롱할 알맹이 등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게 특징이다.

강 작가의 풍경화를 볼 수 있는 건 또 다른 즐거움이다. 추상에서 시작해 늘상 변화를 모색해 온 그가 힘들 때마다 찾곤 했던 강원도 동강, 부안 채석강, 담양 명옥천 등 전국 각지의 풍경을 담아낸 작품은 사실적인 묘사로 손에 잡힐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흐린 뒷배경 등 아련한 모습들이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감성을 만들어낸다. 그밖에 2000년대 초중반까지 제작했던 판화 작품도 만나 수 있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강 작가는 지금까지 32차례 개인전을 진행했으며 '바람이 분다'(파리 세떼데자르) 등 그룹전에 참여했다. 월요일 휴관. 문의 062-223-65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잘하고 싶은 욕심에 열심히 준비 중'

발레단 첫 신입으로 주역 맡은 강은혜씨 ... 호남예술제 최고상 5회 수상

"큰 배역을 맡아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몸짓으로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주시립발레단의 상임단원 강은혜(27)씨가 '백조의 호수' (7월13~15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의 주역으로 무대에 오른다.

지난 3월26일 시립발레단원으로 첫 출근을 한 강씨. 신입단원이 주역을 맡은 경우는 전무후무하다.

"신입단원들에게 비중있는 역할을 맡게 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최태지 감독님 덕분에 큰 역할을 맡았습니다. 시립발레단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역을 맡게 돼 힘들기도 하지만 잘해내고 싶은 욕심이 커서 열심히 준비중이에요. 특히 발레리나로서 꼭 해보고 싶은 꿈의 역할을 하게 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주출신인 강 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발레를 처음 접하고 무용수의 꿈을 키웠다.

특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해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2010년에는 호남예술제 국회의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했고 2010 한국예술종합학교 콩쿨 금상, 2013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시니어 여자 2위, 2013 나가노 국제 무용콩쿠르 시니어 발레 1위, 2014 이스탄불 국제 무용콩쿠르 시니어 여자 1위 등을 차지했다.

강씨는 이번 공연에서 우아하고 서정적인 백조 '오데트'와 강렬한 유혹의 흑조 '오달'까지 1인2역을 소화할 예정이다.

강씨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뭉 뒤를 노니는 백조처럼 보이고 싶다"며 "왕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고뇌를 몸짓으로 표현해 내고 싶다"고 밝혔다.

강 씨는 이번 공연이 끝난 후 14일 의정부에서 열리는 '백조의 호수' 공연에도 참여한다. 또, 오는 8월 서울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광주시향과의 합동 공연에도 출연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승희는 이번 공연에서 우아하고 서정적인 백조 '오데트'와 강렬한 유혹의 흑조 '오달'까지 1인2역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승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뭉 뒤를 노니는 백조처럼 보이고 싶다"며 "왕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고뇌를 몸짓으로 표현해 내고 싶다"고 밝혔다.

김승희는 이번 공연이 끝난 후 14일 의정부에서 열리는 '백조의 호수' 공연에도 참여한다. 또, 오는 8월 서울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광주시향과의 합동 공연에도 출연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승희 국립광주박물관장 취임



국립광주박물관장에 김승희(58·사진) 전 국립전주박물관장이 제10대 관장으로 취임했다.

김승희 관장은 국립박물관에서 26년 동안 근무한 박물관 전문가로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공주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장,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업무의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관장은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미술사를 전공한 불교미술사학자이기도 하다. 2003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획한 '영혼의 여정-조선시대 불교회화의 만남' 특별전은 2007년 유럽 각국으로 순회 전시돼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저서로 '불교회화', '감로탕' 등이 있고 '조선 후기 감로도의 도상연구', '선암사의 불교회화', '한국미술의 판타지', '영혼의 시선'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한편 김 관장은 "국립광주박물관 40주년을 기념해 역할과 위상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문화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먼저 국립광주박물관의 브랜드인 아시아도자문화 실�크로드 거점사업을 통해 새로운 비전과 박물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대표 맛집**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